

이 병 석
대한양돈협회 회장

금년도 양돈산업 전망

지난 2007년에는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결국 타결되었으며, 또한 미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 육류유통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온 한해였다.

국내 양돈현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의 높은 가격에서 지난해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돈가를 형성하여 양돈농가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가축분뇨 해양투기 감축으로 인한 어려움, 소모성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이에 더해 사료값이 국제 옥수수 가격 급등으로 인해 크게 인상됨으로 양돈농가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양돈협회는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가축분뇨 자원화 등 효율적인 해결 방안 마련과 함께 소모성질환 해소를 위한 사육 단계 HACCP사업 더욱 확대, 농가 교육 강화, 국산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추진 등과 함께 산

업의 장기적인 안정 성장을 위해 국제 곡물 상승에 따른 사료안정화대책, 돼지가격 하락에 따른 돼지생산 안정제 및 실질적인 폐업보상제도 도입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를 포함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개정되어 육류 중 음식점에서 가장 많은 둔갑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돼지고기의 유통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은 국내 양돈 생산기반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국내 양돈산업 현황

가) 돼지 사육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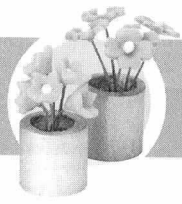
돼지 사육두수는 '06년 평균 938만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에는 평균 950만두

〈표1〉 연도별 돼지 사육두수 및 도축두수

(단위 : 천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사육두수	8,908	8,962	9,382	9,509	8,600
모돈수	935	966	1,012	1,020	915
도축두수	15,202	14,620	13,003	13,700	12,500

※2007, 2008년도는 전망치



로 2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모든 두수도 '06년에 이어 '07년에도 평균 1백만두를 넘는 102만여두를 기록했다.

2007년말 현재 돼지 사육농가는 1만2백여 농가로 지난 2006년 사육농가가 1만1천300여 농가였던 것에 비교해 보면 1년만에 1천1백여 농가가 감소했다. 돼지 사육농가수는 지난 몇 년간의 높은 돈가에 힘입어 그 감소세가 완만한 추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양돈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정세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많은 수의 양돈농가가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 1호당 돼지사육두수는 2007년말 현재 944두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1,000두 이상 사육농가가 전체 농가의 31.1%(3,180농가)로 전년 27.3%(3,090농가)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들 농가가 전체 사육두수 중 81.7%인 7백892천두를 차지하는 등 양돈산업은 규모화, 전업화가 뚜렷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간 돼지도축두수는 '06년까지 해마다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에는 모돈수 증가에 힘입어 약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상당수의 돼지가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돼지 출하를 위해서는 소모성질환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PMWS등 소모성 질환 등에 의한 피해

가 심각한 가운데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폭등,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사상 최대의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으로 가격 하락 지속 등 양돈농가는 대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상당히 많은 현안과제를 안고 가야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나) 배합사료 생산현황

배합사료 생산량은 지난 '06년 5,175천톤, '07년 5,420천톤(추정)에 이어 올해는 높은 사료비와 저돈가, 저수익 기조가 연중 지속될 경우 돼지사육두수 감소와 함께 배합사료 생산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전세계 가장 큰 옥수수 생산국인 미국에서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추출로 옥수수 수요가 늘어 대두를 생산하던 농가들이 옥수수 생산으로 많이 돌아선 반면 콩 생산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대두박 공급 감소로 인한 가격 인상 등 옥수수뿐만이 아닌 대두박까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배합사료 가격 인상은 정해진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향후 배합사료 원료가 되는 옥수수와 대두박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사료허실 방지 등 사양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생산성 하락을 막아야 할 것이다.

다) 돼지고기 수급동향

〈표2〉 연도별 배합사료 생산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배합사료 생산량	5,663	5,419	5,170	5,175	5,420	4,950

※2007, 2008년도는 전망치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국내 돈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06년 21만톤에서 더욱 증가한 24만여톤이 수입되어 사상 최고 수입량 기록을 또한번 경신했다. 지난 몇 년간 돼지고기 수입동향을 보면 '04년 108,778톤, '05년 173,556톤, '06년 210,554톤, '07년 240,000톤(추정)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며 위축될 것으로 보였던 돼지고기 수입량이 감소하지 않고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돈육 수입업자들이 국내 돼지고기 가격 하락분을 간과하고 수입을 강행한 점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07년 수입돈육 물량중 상당량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고 상당량 올해로 이월되어 '08년 1/4분기부터 어려운 유통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 2/4분기부터는 수입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돼지고기 자급률은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상당량 증가함에 따라 70%를 전후해 낮게 형성할 것으로 보여 국내 돼지고기 시장이 상당수 수입돈육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올해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다소 감소해 '07년 대비 10~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은 농가 경영악화와 심리적인 위축으로 사육두수가 감소하면서 국내 돼지고기 총 생산량은 '07년과 비슷한 수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2. 2008년 양돈산업 전망

지난 수년간 형성되었던 높은 돼지가격은 양돈농가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큰 폭으로 인상된 사료가격과 소모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컸던 점을 상기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특히 높은 돈가 형성원인이 국내 돈육 수급의 자연스런 수요공급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요인 즉, 폐사율 증가로 인한 국내 비육돈 출하두수 감소,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에 따른 대체효과가 그 원인이었던 만큼 이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돼지가격 하락이 본격화된 현 시점은 농가의 시름을 더 깊어지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0kg 산지 돼지가격이 평균 22만3천원에 형성되어 본격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 또한 부위별 수급 불균형과 시장수요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해 국내 돈육가격은 지난해보다 더 하락해 100kg 산지 돼지가격이 평균 22만원 밑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배합사료 가격이 연평균 전년대비 15% 가량 더 인상될 것으로 보여 생산비 상승분이 그대로 농가에 전가돼 농가 수익구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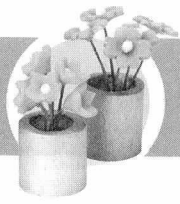
이렇듯 양돈농가 재산성 악화는 사육기반 붕

〈표3〉 연도별 돼지고기 수입현황

(단위 : 톤)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돼지고기 수입현황	60,920	108,778	173,556	195,000	240,000	200,000

※2007년도는 추정치, 2008년도는 전망치



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사료가격 안정 대책과 농가의 뼈를 깎는 생산비 절감 노력이 없이는 양돈산업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년 돼지가격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재수입되어 물량이 확대될 경우 돼지고기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과 과연 농가들이 소모성질환의 피해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도축두수가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가 될 전망이다.

3. 2008년 해결해야 할 양돈산업 현안

국내 양돈산업은 사료값 폭등, 소모성질환 기승,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 수입 돈육의 국내 시장 잠식, 한·미 FTA 국회비준, 한·EU FTA 추진 등 그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올해는 미국, EU 등 양돈선진국들과 FTA 협상 비준 또는 체결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에 대비한 국내 양돈농가들의 생존전략이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또한 친환경 축사모델 설정, 돈열 청정화 사업과 종돈장 및 비육농장 PRRS 안정화 5개년 사업, 농지법 개정에 따른 축사 농지 진입시도 등 친환경 안전한 돈육 생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만들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자연순환 농업을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양돈농가들의 적극 참여가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오는 2011년까지 매년 일정 비율로 감축된다. 양돈협회는 가축분뇨 자원화 100%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시행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경종농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종농가와와의 사업 연계를 더욱

강화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다.

또한 소모성질환 근절을 위해 시설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양돈장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산돈육 차별화 방안을 지속 연구하고 마련하는 등 외국산 돼지고기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다행히 지난 해 11월 22일 정부와 대한양돈협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12월경부터는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실시된다. 이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둔갑 판매되고 있는 돼지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음식점에서의 수입산 국산돈육 둔갑판매는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협회는 이렇듯 올 한해에도 가축분뇨 자원화, 소모성질환 근절, 국산돈육 차별화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삼고 이의 해결을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 한해 우리 양돈산업은 상당히 많은 당면과제 해결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적어도 향후 5년 내 FTA경쟁상대국 수준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한 돼지고기를 생산할 사육시설, 제도 및 규제개선, 분뇨자원화, 교육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양돈협회는 앞서 열거한 수많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전국 양돈농가는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지혜와 힘과 의지를 모아 간다면 수많은 현안들은 하나하나 해결되어 양돈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